

# LIBRARY **EPISODE**

운영체제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은평구립도서관 | 구립상림도서관 | 녹번민화도서관

2021. 여름 Vol.61

## CONTENTS

- 02 독서칼럼
- 04 공모사업 현황
- 06 도서관 이야기
- 09 이용자와 함께하는 이야기
- 10 구립상림도서관
- 11 녹번민화도서관
- 12 시서 선생님들의 추천도서
- 13 작가의 영화 추천
- 14 동아리 소개
- 15 자원봉사 하신 분 / 기증해주신 분  
/ 자료 기증법 안내

고맙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합시다



# 파란하늘 빨간지구



『파란하늘 빨간지구』

조천호 저 / 동아시아 / 2019

여름 날씨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6월 날씨가 예년의 7월 하순 날씨처럼 뜨겁다. 앞서 올봄에는 이례적으로 한파와 더위와 비가 펼치는 '요란한 변주곡'을 경험하였다. 3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6도 높은 8.7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서울의 벚꽃 개화도 평년 4월 8일에 비해 열흘이나 빠른 3월 24일이었다. 4월에는 한파와 초여름 날씨가 뒤섞여 나타났고, 5월에는 이를에 한번 비가 내렸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날씨를 경험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란다.

조천호 박사의 저서 <파란하늘 빨간지구>를 떴다. 동화 같은 책 이름에 예쁜 표지와 달리 이 책의 내용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조목조목 말한다. 저자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여년을 근무한 대기과학자로, 기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구와 인류의 역사부터 지구의 위기와 대응까지 과학문외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룬 인류문명이 인간 지성의 결과라고 오만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좋은 기후 환경이 기반이 되었으며, 따라서 기후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임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는 오랜 기간 동안 빙하기와 간빙기를 주기적으로 거쳐 왔는데 이것이 바로 지구 스스로 기후 균형을 이루는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한다. '홀로세'와 '인류세'를 들어보았는가. 지구는 약 1만 2천 년 전에 빙하기에서 현재의 간빙기인 '홀로세(Holocene)'에 들어섰다. 홀로세는 '인류가 자연과 조화로운 완전한 시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구는 스스로의 조절능력을 잃고 인간의 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를 '인류세(Anthropocene)'라 한다. 인간 활동에 의해 기후 변동의 범위를 넘어선 '기후변화(Climate Change)' 상태인 것이다.

지구역사를 분류할 때 대분류 '대', 중분류 '기' 그리고 소분류 '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 신생대 4기, 홀로세에 살고 있다. 신생대에 유인원의 등장과 함께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현생 인류가 생겨나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지구는 운석 충돌, 화산 폭발, 빙하기 등 자연적 원인으로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여섯 번째 멸종은 인간이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경고와 함께 '인류세'가 회자되고 있는데, 이 말은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네덜란드의 대기과학자 파울 크뤼천 교수가 2,000년에 국제 지원·생물권 프로그램에서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홀로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세에 있다"고 선언하며 인류세를 '인간이 지질학적 힘이 된 시대'라고 정의하였다.

현재 대지와 바다에 무려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있고, 생물의 개체수는 지난 40년간 평균 58%가 감소했으며 하루에도 10여 종이 멸종하고 있다. 또한 해양온도 상승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산소 생산을 방해하여 생물이 살지 못하는 데드 존이 생성되어 40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으며 이것이 대기 온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유엔세계기상기구(WMO)는 작년 세계기후상황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지구의 평균온도가 관측 아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구를 차갑게 하는 라니나현상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19년에 이어 지구가 가장 더웠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WMO는 지난해 전 세계 해양의 80% 이상이 한 번 이상의 폭염을 경험했으며 지구 평균 해수면의 상승도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폭염 외에도 태풍과 허리케인 피해도 강력하다. 여기에 코로나 19까지 가세함으로써 지난해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기후 재난과 코로나 19 피해를 동시에 입었다고 한다.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나타날 피해가 식량난 일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2019년에 세계 인구의 9%인 6억 9천만 명의 사람이 영양실조에 처했고 7억 5천만명은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을 경험하고 있단다.

2000년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기 이후로부터 섭씨1.2도 상승하였다. 앞서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은 전 세계가

파국을 막기 위해서 203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 수준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 하고, 가능하면 1.5도를 넘기지 말자고 결의한 바 있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섭씨 1.5도 이내로 기온상승을 제한해야만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겨우 0.3도 남았다. 망설일 틈이 없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와 행동을 해야만 한다.

지난 5월 30일과 31일에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정상 회의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비전 실현'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후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큰 회의가 개최된다면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당장 행동 하지 않으면, 인류의 공멸을 막을 수 없다. 무엇보다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의 필요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시민들의 실천적 참여를 호소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거시적인 담론과 정책 추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특정국가나 특정인이 아닌 우리 모두 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자, 지금부터 소유보다 공유, 쓰레기 제로 실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종이 사용 자제,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 나부터 실천하고, 이웃도 실천하도록 노력하자. 기후위기는 인간의 위기이다!

#### 필자 이정수 사서

현재 서울도서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 조사부 기자, 서울서대문구립도서관  
관장으로 일했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시N 홈페이지 발행

## 2021년 공모사업 선정실적



은평구립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제공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 센터와 연계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정보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1관 1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창의적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북아트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한국언론재단이 주관하여 다양한 연령 및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의 뉴스 및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과 미디어 정보 복지를 위해 미디어 교육을 지원한다.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 유형별 맞춤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을 활성화하고 있다.

###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 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자생적 인문 활동을 확산하고 있다.

## 지역연계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 지원 사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자책, 오디오북, 태블릿 등 체험공간 및 시설 설비 조성 지원을 통해 디지털 독서문화 보급 및 디지털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 이주민과 선주민들의 문화 이해를 돋고 편견과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실행 방안을 위해 6개의 은평구공공도서관이 함께 기획·운영하고 있다.

총 22개  
공모사업 운영

약 2억 8,461만원

## 은평구 서울북스타트 사업

북스타트 코리아와 서울시, 서울 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영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북스타트 책꾸러미 제공과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사서, 평생 교육사, 도서관 상주 작가가 협업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보 교류 및 문학 독서 경험을 넓히고자 다양한 동아리 및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사업



공공도서관의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문화자원을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 그리고 도서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 활성화 지원 사업



서울도서관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독서 토론 주제를 주민과 함께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독서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공간 조성 현장 방문**



2021년 4월 29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은평구립 도서관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공간 조성 현장과 도서관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도서관을 들러보며 관내 시설과 코로나19 방역 상태 현장을 점검하였고, 은평구립도서관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조성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란 코딩, 로봇, 드론, 3D프린터, VR/AR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직접 경험해보며 창의적·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서,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에서 보다 폭넓은 서비스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도서관 내 체험 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와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 저변 확대 및 정보 교류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는 메이커스페이스존, 코딩 드론 존, 디지털 드로잉존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2021년 연말 개관할 예정이다.

# 책단비 서비스 확대

- 은평구공공도서관 책단비 서비스 확대 운영 실시
- 무인기기 응암역에 신설, 녹번역에 증설



코로나19로 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진 현재 은평구 공공도서관이 주목받고 있다. 도서관 최초 RFID기술 적용, 책단비 서비스 운영 등 무인 기기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은평구 내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고 주민들이 유입되면서 책단비 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무인예약이 어렵다는 민원이 자주 올라오는 등 어려움을 토로하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았으나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책단비 서비스 확대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와중 2020년 은평구의회에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책단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책단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책단비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았던 응암역에 신규로 예약 도서무인대출기와 무인반납기를 설치하였고 이용량이 많았던 녹번역에도 기기를 증설하였다. 새로 추가된 기기들은 6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예약 도서무인대출이 가능한 지하철역은 구파발역, 녹번역, DMC역, 응암역, 상림도서관 버스정류장이다.

덧붙여 은평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면 대출 서비스에는 예약도서 무인대출 외에도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도서관이 있다. 스마트도서관이란 지하철역에 설치된 기계로, 일종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 안에 사서들이 엄선한 도서 약 500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도서관 회원이라면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도서대출이 가능하다. 스마트도서관은 역촌역, 연신내역, 불광역에 설치되어 있다.



## 1 예약도서무인대출기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리브로피아에서 도서 예약 후 예약도서무인대출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 문자수신 후 이용 바랍니다.

- 모늘 낮 12시 ~ 내일 낮 12시 예약도서는 모레 누임  
예) 월요일 오전 10시 신청 시 화요일 투입  
화요일 오후 12시 10분 신청 시 수요일 투입
- 금요일 낮 12시 ~ 일요일 낮 12시 예약 도서는 월요일 투입  
(일요일 도서 두일)



## 2 무인반납기

책단비 서비스 연계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무인반납기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무인반납기에 반납한 도서는 즉시 반납 처리됩니다.

- 파손, 분실 방지를 위해 부록은 부록한 벌도 반납
- 1권씩만 반납 처리 가능 (여러 권 반납 시 1권씩 반복하여 반납)



## 3 스마트도서관

예약 절차 없이 스마트도서관 비치 도서를 바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한 도서는 홈페이지 '스마트도서관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스마트도서관 대출 도서는 해당 기기에서만 반납 가능  
예) 연신내역 스마트도서관 대출 도서는 연신내역 스마트도서관  
이서문 반납 (무인반납기, 도서반납함, 도서관 방문 반납 불가)



## 4 도서반납함

책단비 서비스 연계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도서반납함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납 도서는 다음날 수거되어 소급 반납 처리됩니다.

- 파손, 분실 방지를 위해 부록은 도서 사이에 꺼워서 반납
- 휴관일(월요일), 공휴일에는 수거하지 않음



### 책단비 서비스 연계 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종산정보도서관, 응암정보도서관,

은평뉴타운도서관, 구산동도서관마을,

내구건너서숲으로도서관, 은뜨락도서관,

구립삼림도서관, 불광천작은도서관, 신사어린이도서관



## 제21회 대학입시설명회



은평구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입시전략을 찾을 수 있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전망과 대책」 설명회 영상을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은평구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였다. 강연은 30년 동안 대성학원에서 대학입시 자료 개발과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국내 최고 대학입시 전문가인 이영덕 소장이 진행하며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지표는 무엇인가? ▲모집단위별 합격선 등급컷 ▲주요대학 입시분석 등 합격을 위한 2022학년도 대입분석과 입시 전략 전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대학입시에 관심 있는 수험생, 교사 및 학부모라면 누구나 무료로 은평구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볼 수 있으며, 대학입시 관련 자료는 은평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공개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도서관 주간 행사

### <1일1책 책놀이터>, <당신을 위로하는 필사>

제 57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1일1책 책놀이터>와 <당신을 위로하는 필사>를 진행하였다. <1일1책 책놀이터>는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어린이 도서 추천과 책놀이 활동을 하였고, 도서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서관 퀴즈를 진행하였다. <당신을 위로하는 필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온라인 필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친 일상에 감성과 위로를 주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



### 2021년 공공-작은도서관 운영자 전문교육

#### <포스터 제작과 영상편집 해보기>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과정 교육 지원으로 자주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운영자 전문 교육은 <포스터 제작과 영상편집 해보기> 프로그램으로 6월 3일(목) ~ 6월 24일(목), 총 4회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사진과 포스터를 이용한 영상 자료 편집 및 깔끔하게 정돈된 이미지 표현과 내용의 직관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되었다.



## 가정의 달 행사

### <당신을 위한 비밀책>, <미녀와 야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키워드만 보고 책을 대출하는 블라인드 대출 <당신을 위한 비밀책>과 온라인 뮤지컬 공연 <미녀와 야수>를 진행하였다. 블라인드 대출 행사를 통해 사회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였으며, 온라인 뮤지컬 공연으로 온 가족이 함께 힐링하는 폭넓은 문화 향유의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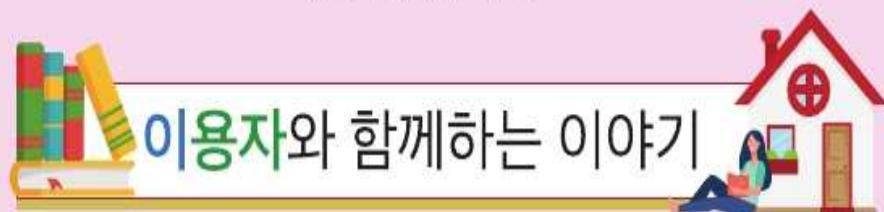


## 부모교육

### <북스타트 부모교육>, <예비 초등 학부모 특강>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그림책 독서 지도법 및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알려주는 <북스타트 부모교육>, '엄마의 책갈피 인문학' 저자 초청 <예비 초등 학부모 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영유아 또는 예비 초등학생을 둔 양육자들을 위해 독서 교육 노하우 제공과 함께 자녀교육의 불안감 및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 겨울 방학 독서교실

지난 1월19일~22일에 겨울방학 독서교실에 참여했던 정윤\* 엄마입니다.

토닥토닥, 힐링캠프란 주제로 이루어진 독서교실.. 처음에 독서교실 하면 책과 관련된 것만 생각했는데.. 그보단 주제에 맞게 테라피로 이루어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에 익숙해져야 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식물테라피, 미술테라피, 푸드테라피, 도서관 테라피.. 4일 동안 주제도 다양하게, 그리고 그 준비도 내용도 알찼던 수업  
필요한 부분 보조해주면서 옆에서 지켜보는데..아이가 신나서, 그리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 보면서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주제로 이루어진 독서교실,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의 테라피가 되어 준 시간 만들어주신 선생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자 박\*\* 2021.01.30.



##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5월 8일 가정의 달 맞이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사촌동생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어디 나갈 수 없는 현 시국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동생들이 정말 좋아했고, 저도 간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네요 ~~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자 윤\*\* 2021.05.09



## 종합자료실 이재덕 선생님과 두 분의 여자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인천계양에서 2월19일 은평구 녹번동으로 이사온 이용자입니다.

인천계양구의 책이음카드로 대출은 가능하나 로그인이 안되어 홈페이지를 이용한 서비스가 불가했습니다

3월 19일 재방문 어찌된일인지 은평구에 회원은 가입되어 있고 로그인은 안되는 상태인데 오늘 도서관을 재방문하여 세분 선생님 모두가 1시간도 넘게 계속 처리위해 애써주셔서 로그인이 되어 상호대차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자료실 이재덕선생님과 두 분 여자선생님께서 정말 정성을 다해 애쓰시는 모습 뛰고 감동했습니다.

은평구로 이사를 잘 왔구나 싶기도 하고 제 아들 딸연배의 젊은 선생님들이시지만 참 고마웠고 은평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선생님들 애쓰신 마음에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오늘 종합자료실 근무하신 선생님들 칭찬합니다.

이용자 김\*\* 2021.03.20



## 그림책과 함께하는 명화여행

여러 화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는 작가들이 3명이나 나와서 친숙했어요. 특히 에바 알머슨 작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작품 활동도 매우매우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재밌는 수업 준비하고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자 김\*\* 2021.02.26



# 구립상림도서관 새단장



구립상림도서관이 노후화된 건물의 보수와 열람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도서관 관종과 명칭의 차이로 인한 이용상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하여 기존 상림마을 작은도서관에서 구립상림도서관으로 도서관의 명칭이 변경되고,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도서관 로비에는 무인자동화시스템이 강화됨에 따라 무인예약 대출기의 예약 권수를 확대하고, 무인반납기를 설치하였다. 1층에는 통합사서데스크가 마련되었으며, 가족 대상 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유아 도서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열람실이 신설되었다. 2층에는 생태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 교육실이 신설되었으며,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락한 쇼파 좌석을 마련하였다. 기존 도서관 운영 시 이용자들의 요청이 있었던 노트북 및 전자 기기 사용에 용이한 열람 좌석 공간도 마련되었다.

구립상림도서관은 현재 보유하고 있던 장서보다 더 많은 장서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자료실의 서가를 추가하여, 장서 소장 공간을 증가시켰다. 새롭게 변화된 구립상림도서관에서는 앞으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연령별 프로그램과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녹번만화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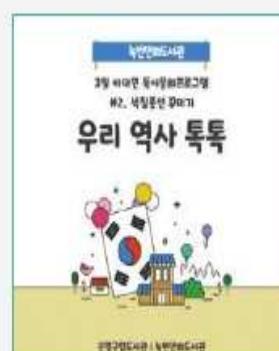
7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침으로 녹번만화도서관이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도서관은 휴관 중에도 다양한 월별 전시와 키트 배포를 통한 비대면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재개관을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사전 방역 및 소독 작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한 열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키트 배포를 통한 월별 프로그램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시 및 다양한 월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월별로 다양한 주제로 도서를 소개하고 관련 키트를 배포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만화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임덕영 만화가의 <나는야 웹툰작가>

녹번만화도서관에서는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으로 임덕영 만화가를 초청하여 '나는야 웹툰작가' 프로그램을 5월 2일(일)부터 23일(일)까지 총 4회차로 운영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만화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이론 수업과 실습 시간을 통해 웹툰 작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서 선생님들의 추천도서



### 바다의 뚜껑

요시모토 바나나 저  
민음사  
2016

종합자료실 진정민 사서

이 책은 모두가 바라는 성공적인 삶을 버리고 고향의 해변에서 빙수 가게를 여는 마리의 이야기다. 비록 소박한 가게지만 마리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오롯이 살아낸다.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놓인 일상을 어떻게 하면 충실히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아름다운 여름 묘사와 잔잔한 애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어 휴가지에서 가볍게 읽기에도 좋은 책이다. 동명의 영화도 있으니 생생한 영상미를 만나고 싶다면 영화도 함께 보는 것을 추천한다.



### 수영장의 바닥

앤디 앤드루스 지음 ; 김은경 옮김  
총익  
2019

구립상립도서관 최지원 사서

여름이 되면 우리가 흔히 찾는 수영장을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높이 떠오르기 위해 수영장 바닥을 발로 짊는 모습은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이 도서를 보며 수영장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놓친 지혜와 지식을 함께 견져보고, 삶의 기준을 세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인생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도서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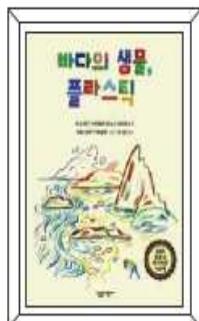
### 우두커니

심우도 저  
심우도서  
2019

녹번만화도서관 신영랑 사서

“2020 부천만화대상” 대상 수상작 “어느 날, 아버지에게 치매가 왔다.”

작가 부부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겪고 느꼈던 것들을 재구성하여 만든 작품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버지에게 찾아온 치매를 담담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내었다. 책을 읽다 보면 아프고 힘든 시간 속 아버지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느꼈던 작가 부부의 수많은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다. 여름 휴가철, 새로운 여행지에서의 휴식도 좋지만, 가족의 소중함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바다의 생물, 플라스틱

아나 페구,  
이자베우 링노스 마르칭스 저  
살림아린이  
2020

어린이자료실 이정은 사서

지구의 날 50주년 기념한 책으로, 2020년 불로냐 라가치상 수상작이다. 저자는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물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 관심을 갖고 수집하는 사람인 ‘비치 코머(beachcomber)’이다. 비치 코머인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닷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집하는 방법,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는 바닷생물의 이야기,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사진과 색연필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다. 여름 휴가시즌에 많이 생겨나는 바닷가 쓰레기 환경문제를 스스로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다.



은평구립도서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1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은평구립 도서관의 상주작가로 선정된 김나희 작가는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올해로 74회를 맞이하는 칸 영화제를 맞이하여 김나희 작가가 선정한 영화 큐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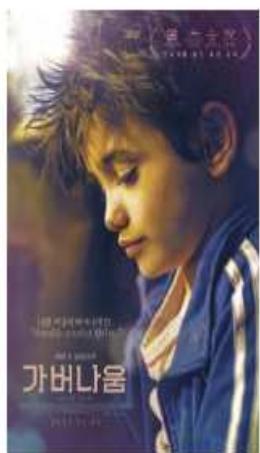


더 스퀘어  
The Square

루벤 외스톨룬드 감독  
2017

감독의 사실주의적 미학이 돋보이는 영화로 지난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경쟁부문에 진출했을 때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현대인들의 삶에 아무렇지 않게 스며들어 있는 위선과 모순, 말과 행동의 불일치함, 난해하고 혼탁적인 표현으로 가려진 텅빈 공허한 현대 미술계의 모습 등이 차분하게 펼쳐진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이다.



가버나움  
Capharnaum

나딘 라바키 감독  
2018

2018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 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아역 배우 출신이 아닌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 줄 수 있는 일반 출연진을 고른

과감한 캐스팅이 빛을 발해, 놀라울 만큼 사실주의적인 미학이 돋보인다. 열두 살짜리 아이가 세상의 각박함을 온몸으로 통과한 후, 친부도에게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지나온 시간이란 어떤 것일까. 기적과 혼돈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성경 속 지명인 '가버나움'은 논픽션 다큐 멘터리와 픽션의 경계에 있는, 우리를 혼란과 놀라운 깨달음 사이에 빠트린다는 점만으로도 영화의 미덕을 모두 갖춘 작품이다.



하얀리본  
The White Ribbon

미하일 하네케 감독  
2009

2009년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박쥐>가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던 해에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다.

흑백으로 담긴 영상 속에서 세계 1차대전이 일어나기 전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의문의 사건들을 따라가는 내용이다. 순수를 상징하는 하얀 리본을 팔에 묶은 아이들, 기독교적 가르침과 봉건적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관찰하는 학교 선생님이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교묘하고 지독한 폭력, 무관심으로 점철된 지배층의 관용 등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침혹한 폭력에 대해 서늘한 시선으로 관조하듯 바라보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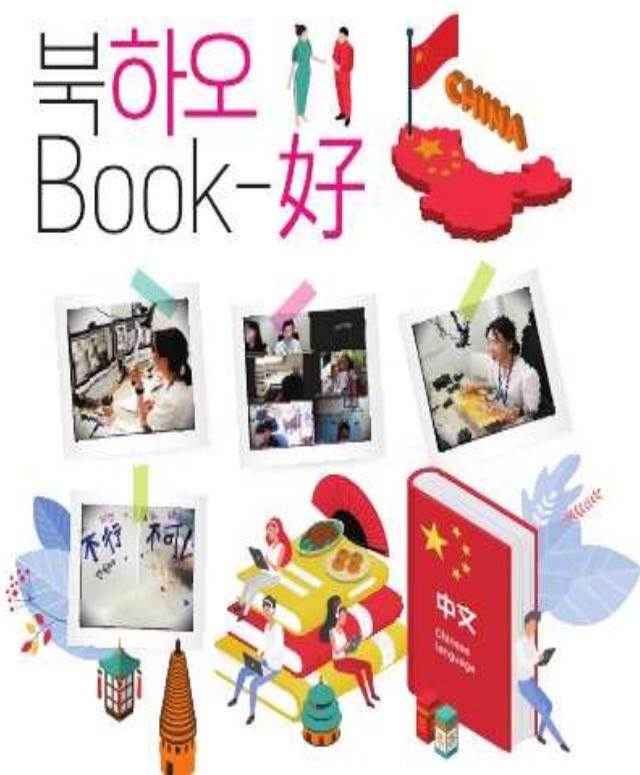
## 동아리 소개



은평구립도서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시적으로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 및 신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책거름> : 북아트 교육 컨텐츠 학습동아리  
<MATE 에코북> : 환경 독서동아리  
<메디사이언스> : 청소년 과학실험 독서동아리  
<북쉐프(Book Chef)> : 청소년 그림책 연구동아리  
<라블리(Lib(love)ly)> : 독서동아리  
<원페이지북(One Page Book)> : 어린이 독서토론 동아리  
<매아리> : 어린이 과학 독서동아리  
<상상낙서(樂書)> : 어린이 독서 낭송 동아리  
<책동이> : 진로탐색 독서동아리

동아리 관련 문의 : ☎ 02.385.1671 (내선5)



### Q. 북하오 동아리를 소개 해주세요! 뜻은 무엇인가요?

A. 북하오는 영어 "Book(책)"과 중국어 "好(hao: 좋다)"로 만든 이름으로 '책이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서 선생님과 함께 중국어 그림책 읽기를 통해 재미있게 중국어를 배우는 중국어 학습 독서동아리입니다!

### Q. 북하오 동아리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제2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웠던 경험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밌게 그림책으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외국어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외국어에 대한 흥미 유발과 함께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Q. 앞으로의 동아리 운영 계획이 알고 싶어요!

A. 북하오는 1년 동안 운영되는 독서동아리이며 매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대면으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어 그림책과 함께 다양한 독후 활동을 계획하여 재미있는 중국어 독서동아리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 Q. 북하오 동아리 회원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항상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6개월 동안 함께 더욱더 재밌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북하오 동아리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사서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짜이찌엔!



# LIBRARY EPISODE



은평구립도서관

